

김일성의 책임기*

-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나타난 독서 편력을 중심으로 -

정종현**

〈차 례〉

1. 『세기와 더불어』에 나타난 김일성의 독서 목록
2. 유년기(팔도구, 창덕학교, 무송)의 교육과 독서
3. 길림 시절의 독서 (1) - 마르크스 원전과 진보적 혁명문학
4. 길림 시절의 독서 (2) - 민족주의와 관련된 독서의 편린
5. 유격대 시절의 책임기와 교조주의 비판
6.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와다 하루키는 김일성이 만주에서 벌였던 유격대 활동의 경험을 전 인민이 본받아야 할 역할 모델로 설정하고 인민들에게 유격대원으로서의 품성을 요구하는 이른바 ‘유격대 국가’라는 틀로 북한을 설명한 바 있다.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의 역사는 북한 사회의 창세기에 해당한다. 김일성의 경험과 그로부터 연원한 그의 교시는 북한에서 확고부동한 원칙으로 작동한다. 이런 의미에서 김일성이 읽었던 책들과 그에 대한 그의 견해는 북한의 학술과 교육, 지식과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때문에 김일성 자신이 읽었다고 언급하고 있는 책의 세목을 검토하는 것은 김일성 개인 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의 지식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서도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 글에서는 먼저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김일성이 읽었다고 회상하고 있는 책들의 목록을 추출했다. 이어서 김일성이 자기 삶에 특별한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하는 중요한 책들의 의미를 당대의 역사적 사실과 교차하면서 검토했다. 김일성이 읽은 책은 이광수, 루쉰 등의 문학 작품, 삼국지 등의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 (NRF-2019S1A5A2A01046090) 및 인하대학교의 일반교수연구비(65454-1)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동아시아의 고전 소설, 각종 병서류,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저작들, 식민지 조선과 중국에서 간행되던 신문과 잡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김일성의 독서의 궤적이 중국의 혁명가 마오쩌둥의 독서의 경로와 흡사하다는 점이다. 동아시아에서 건국된 대표적인 사회주의 정권의 두 권력자의 유사한 지적 행로에 대해서도 비교의 시각을 열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독서 경험, 이광수, 상월(尙鉞) 선생, 장광자(蔣光慈), 루쉰(魯迅), 삼국지, 마오쩌둥(毛澤東)

1. 『세기와 더불어』에 나타난 김일성의 독서 목록

이 글은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¹⁾에서 언급된 김일성이 읽은 책의 목록을 추출하고, 책읽기에 대한 김일성의 기억이 지니는 정치·문화적 의미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와다 하루키는 북한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김일성이 만주에서 벌였던 유격대 활동의 경험을 본 받아야할 역할 모델로 설정하고 인민들에게 유격대원으로서의 품성을 요구하는 이른바 ‘유격대 국가’의 틀로 설명한 바 있다.²⁾ ‘영원한 주석’이자 ‘위대한 수령’으로 추앙되는 김일성은 북한이라는 국가의 알파요 오메가이다.³⁾ 이러한 김일성의 자기 형성에 계기로 작용한 책읽기의 구체적 세목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한 혁명가로서 구축하고자 한 김일성의 자기상을 확인하는 것이면서, 김일성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다.

북한 정권의 수립기에 그와 경합했던 여러 혁명가들과 비교했을 때, 김일성의 학력은 그리 내세울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 자신의 회고와 여러 증언을 종합해보면, 김일성은 평양의 창덕학교를 잠시 다녔고, 중국에서 무송제1학

1)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이 생전에 직접 관여한 1~6권과 그의 사후에 김일성이 남긴 어록을 토대로 구성된 계승본 7~8권 등, 총 8권으로 구성된 회고록이다. 1, 2, 3권은 1992년, 4권은 1993년, 5권은 1994년, 6권은 1995년, 계승본 7권은 1996년, 계승본 8권은 1998년에, 모두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한 종이책을 분석하였다. 이하 서지 사항은 각권과 쪽수만 명기한다.

2) 와다 하루키, 서동만·남기정 옮김, 『북조선 -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돌베개, 2002.

3) 와다 하루키, 남기정 옮김, 『와다 하루키의 북한 현대사』, 창비, 2014, 23쪽.

교를 졸업했으며 화전의 화성의숙을 거쳐 길림의 육문중학교에 2년 정도 다니다 중퇴한 학력을 가지고 있다. 고학력은 아니었지만, 김일성은 평생 많은 글과 연설을 남겼다. 해방 이후 그가 작성한 연설과 논문 등은 국가 운영의 전 분야에 걸쳐 있었으며 혼자서 썼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분량을 자랑한다.⁴⁾ 전문가 집단의 보조가 뒷받침되었겠지만, 그가 북한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있는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지적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즉, 김일성은 정치적 언어와 사유가 학력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역량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김일성은 회고록에서 일본 제국주의 및 자본가 계급과 맞서 싸우는 유격대의 경험 속에서 부단히 사유하고, 동시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원전과 다양한 책을 읽으며 혁명의 올바른 노선을 창출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지도자로서의 형상을 구축하고 있다. 그는 “하루밤에 서너시간 이상 잠자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산에서 싸울 때도 대체로 새벽 2시경이면 어김없이 깨어나 불을 켜놓고 책을 보곤 하였”⁵⁾다고 회고한다. 치열한 책읽기를 거르지 않은 김일성의 자기상 제시는 당대 지식인 출신 조선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격렬한 비판적 진술과 함께 읽을 때 그 온전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김일성은 회고록에서 길림이나 만주에서 활동했던 안광천, 신일용, 김찬 등 화요계, 엠엘계 등의 쟁쟁한 이론가들의 분파주의적 특징과 교조주의적 인식에 대한 깊은 불신과 비판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론가들에 대한 비판의식에서는 미묘한 콤플렉스가 감지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다음의 대목을 읽어보자.

공청에 가입하자면 적어도 《사회주의대의》쯤은 통달해야 하였고 《공산당선

4) 서대숙·이완범 공역, 「김일성 문헌에 대한 고찰」, 『김일성연구자료집 1945-1948년 문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1, 34~35쪽. 이에 따르면, 조선노동당과 정부문제, 군사안보 문제 등 북한 정치와 관련한 문헌은 김일성 자신이 주도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상과 이론에 관한 문제, 조금은 미시적인 사회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각각의 전문가 집단의 글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그의 연설문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벽찬 분량이었다.

5) 『세기와 더불어』 5권, 100쪽.

언》이나 《임금 로동과 자본》과 같은 고전들도 읽고 분석할 줄 알아야 하였다. 만일 심사과정에 《공산당선언》을 읽지 못했다는 것이 판명되면 “《공산당선언》도 모르면서 어떻게 공청생활을 해!”하고 까박을 붙이는 것이 통례였다.⁶⁾

김일성이 이른바 ‘좌경관문주의자’에 대해 비판하는 대목이다. 길림 등에서 공청 조직에 가입을 신청하는 청년 100명 중에 3명 정도만 공청원으로 받아들였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김일성은 길림 시절 사회주의 청년들 중에 사회주의 지식을 뽐내는 이른바 “행세식 사회주의자”들이 있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론서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까박을 붙이는” 상황을 본인이 직접 겪었거나 목격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의 회고록은 미성숙한 인간의 성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무오류의 혁명가의 활약을 그린 서사에 가깝다. 이것은 수령의 영도 체제에 토대한 북한사회의 특성과 긴밀하게 관련된다. 북한이라는 사회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이자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인 수령의 영도에 의해 움직이는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이 활짝 꽃피는 행복의 락원”⁷⁾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세계의 근원인 수령 김일성은 성년 때는 물론 아이 때에도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존재이다. 자서전이나 자전적 성장소설에서는 지금-여기의 서술하는 주체와 서술되는 대상 사이의 어떤 간극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김일성의 회고록에서는 서술하는 주체인 ‘노혁명가’ 김일성이나 서술되는 주체로서의 ‘청년 김일성’ 사이의 차이가 부재한다. 이 텍스트에는 식민지 해방 투쟁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이끌어온 무오류의 전지적 시점의 수령만이 편재하고 있다.

김일성이 구축한 자기 서사가 과연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을 회고록의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글의 목적은 김일성의 경력과 관련한 사실 여부를 밝히거나 김일성을 평가하는

6) 『세기와 더불어』 4권, 75쪽.

7)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은 동지의 문헌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56쪽.

데 있는 것은 아니다. 김일성의 자기 서사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당대의 사실과 견주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가능하면 김일성이 거론하는 책과 그 맥락에만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세기와 더불어』에서 김일성이 읽었다고 언급하고 있는 도서들의 목록을 확인해 두자. 아래의 목록은 그가 읽었다고 언급한 책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⁸⁾ 이 목록의 책들은 김일성이 자기 삶에 특별히 영향을 끼쳤다고 거론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기와 더불어』에서 김일성이 언급한 도서 목록

연번	제목	저자	출판사	독서 시기	비고
1	조선지위인			팔도구소학교	
2	조선영웅전			팔도구소학교	
3	로국혁명사와 레닌			팔도구소학교	
4	삼자경(三字經)			팔도구소학교	
5	레닌, 손문, 워싱턴 위인전			팔도구소학교	김형직의 이야기 교육
6	춘향전			팔도구/무송	
7	십청전			팔도구/무송	
8	리순신전			팔도구/무송	
9	서유기			팔도구/무송	
10	사회주의 대의			무송제1학교	소책자
11	레닌의 일생기			무송제1학교	소책자
12	국어독본	김형직		백산학교 교재	김형직의 저술(등사판)
13	공산당선언	마르크스		화성의숙(화전)	총관 김시우 서제
14	공산당선언	마르크스		육문중학교(길립)	

8) 『세기와 더불어』에서 추출한 도서목록에는 없지만 김일성이 읽은 다양한 책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의 처형으로 탈북명명한 성혜랑은 흥미로운 증언을 남긴 바 있다. 그녀의 회고에 따르면, 개벽사 기자 출신으로 김정일의 장모이기도 했던 자신의 어머니 김원주가 남쪽 책들도 함께 구해서 김정일의 서가를 꾸렸다. 그때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가 방북했고, 북한에서 출판된 적 없는 그녀의 작품을 찾는 김일성에게 김정일이 소장하고 있던 남쪽 출판의 루이제 린저의 책을 제공했고, 김일성이 그녀의 책을 미리 읽고 작가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성혜랑, 『등나무집』, 지식나라, 2001, 458쪽.

15	자본론	마르크스		육문중학교(길림)	
16	국가와 혁명			육문중학교(길림)	
17	임금노동과 자본			육문중학교(길림)	
18	번역월간			육문중학교(길림)	잡지
19	홍루몽	조설근		육문중학교(길림)	상월선생 서재
20	어머니	고리키		육문중학교(길림)	상월선생 서재
21	축복	루쉰		육문중학교(길림)	상월선생 서재
22	아큐정전	루쉰		육문중학교(길림)	
23	압록강가에서	장광자		육문중학교(길림)	상월선생 서재
24	소년방랑자	장광자		육문중학교(길림)	상월선생 서재
25	원썬들	고리키		육문중학교(길림)	상월선생 서재
26	진독수선집	진독수		육문중학교(길림)	상월선생 서재
27	철의 흐름	셰라모위츠		육문중학교(길림)	영화도 관람
28	재생	이광수		육문중학교(길림)	
29	무정	이광수		육문중학교(길림)	
30	개척자	이광수		육문중학교(길림)	
31	혁명의 이해	이광수		무송	유격대 창건 직후
32	삼국지			육문중학교(길림)	'당수'(구연)
33	민족개조론	이광수		육문중학교(길림)	
34	조선이 조선의 것 되기를 바랄뿐입니다(간디의 편지)	간디	동아일보 1927.1.5	육문중학교(길림)	조선일보로 착가
35	손자병법			돈화	유격전 이론
36	삼국지			돈화	유격전 이론
37	동국병감			돈화	유격전 이론
38	병학지남			돈화	유격전 이론
39	전쟁론	클라우제비츠		2차세계대전	88여단 시절
40	농촌 문제 연구	신일용	개벽62호 1925. 8.		
41	남만주행	이돈화	개벽61~62 1925.7-8.		
42	조선민족만이 가진 우월성	기전(김기전)	개벽61호 1925.7		

43	고구려국민의 기상과 노력	이병수	개벽61호 1925.7		
44	천혜가 특대한 조선의 지리	청오(차상찬)	개벽61호 1925.7		
45	8도 대표의 8도 자랑	차돌이	개벽 61호 1925.7		
46	외국인이 본 조선의 인상		개벽 61호 1925.7		설문
47	동아일보, 만선일보, 조선일보				
48	매일신보 특간호(이재유 체포기사)			1937년 5월	
49	금란지계전				북청 혁명조직의 교양 자료
50	최남선, 윤치호, 최린 등의 체제협력글				국내신문 소개
51	이광수의 창씨관련글				매일신보 소개
52	조선지리통감			88여단시절	
53	신채호의 이승만 성토문			길림시절	손정도 대어

2. 유년기(팔도구, 창덕학교, 무송)의 교육과 독서

1912년 평양에서 출생한 김일성은 아버지 김형직의 만주 망명에 따라 여덟 살 때부터 중국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그가 다닌 첫 학교는 장백현의 4년제 팔도구소학교였다. 중국어 교재를 사용하여 중국어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였다. 중국학교에 다녔지만, 집에서는 아버지 김형직으로부터 개별 교습을 받았다. 김일성은 유년기에 김형직의 지도로 『조선지위인』, 『조선영웅전』, 『로국혁명사와 레닌』과 같은 좋은 책들과 신문, 잡지들을 많이 읽을 수 있었다⁹⁾고 회고하고 있다. 열두 살이 된 김일성은 다시 국경을 넘어 1923년 3월

9) 『세기와 더불어』 1권, 72쪽. 김형직은 김일성에게 “우리 글과 지리, 조선력사를 배워주고 레닌, 신문, 위싱턴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었으며 진보적인 소설이나 서적들 가운데서 몇 권을 지정해주고는 어김없이 읽고 감상을 발표하도록 체계적인 독서지도”를 해 준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29일에 평양의 외가에 도착하고 이후 창덕학교에 다녔다. 창덕학교에서 “13명의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며 마분지로 만든 열새개 도의 지도를 붙여 조선 지도를 만드는 춤”¹⁰⁾인 ‘열새집’ 등을 공연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¹¹⁾ 평양에서 2년여를 보낸 후 김일성은 아버지의 투옥 소식을 듣고 다시 팔도구로 돌아왔다. 김형직은 호송 중에 탈출했고 김일성 일가는 무송으로 이사했다. 김일성은 무송제1학교에 다니면서 “『레닌의 일생기』나 『사회주의 대의』와 같은 책을 몇권 읽었”¹²⁾지만, 사회주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접한 것은 화전에 있던 화성의숙에 진학한 뒤부터였다고 회고하고 있다. 화성의숙은 정의부 산하의 독립군 학교였다. 김형직과 인연이 있었던 오동진의 소개로 1926년 3월 무렵 이곳에 진학했던 김일성은 화성의숙에서 사회주의의 세례를 받은 청년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곳에서 그는 『공산당 선언』을 읽었으며 그 때문에 학교 당국과 갈등을 빚었다고 회고한다.¹³⁾ 화성의숙 생활은 불과 3개월여 만에 끝났다. 김형직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무송에 돌아온 김일성은 이후 다시 길림의 육문중학교에 진학했다.

창덕학교와 화성의숙 등의 조선인 학교도 거쳤지만 김일성이 주로 다녔던 팔도구소학교 - 무송제1학교 - 육문중학교는 모두 중국학교였다. 즉, 그는 조선인 이주자이면서 동시에 중국의 기초교육을 받아 중국어에 능숙한 이중언어 사용자였다. 교육을 통해 형성한 그의 지식과 교양의 중요한 부분은 중국적인 것이었다. 어린 시절의 교육은 한 인간의 문화적 소양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를테면 팔도구 소학교에서 배운 「삼자경(三字經)」¹⁴⁾에 대한 김일성의 언급은 그 사례이다. 유격대 활동 중에 주인의 허락없이 강냉이

10) 『세기와 더불어』 1권, 91쪽.

11) 『세기와 더불어』에서 김일성이 창덕학교에 대해 남긴 회고 중에서 연극봄에 대한 회고도 각별히 기억해둘만하다. 김일성은 자신의 창덕학교 재학시절이 식민지 조선에서 연극봄이 일었던 때였으며, 그 자신도 동창생들과 이름난 극단들의 평양 순회 공연을 보았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풍조에 편승하여 자신의 초기 혁명 활동 시기에 연극운동을 했으며 그것이 「피바다」 등의 집체 공연의 토대가 되었다고 암시하고 있다. (『세기와 더불어』 5권, 48쪽)

12) 『세기와 더불어』 1권, 153쪽.

13) 『세기와 더불어』 1권, 158쪽.

14) 「삼자경(三字經)」은 중국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문자를 가르치는 데 사용한 교과서이다. 읽기 쉬운 한 구를 세 자로 하고, 격구마다 운(韻)을 달았다. 송나라의 왕응麟(王應麟)이 지었다.

이삭을 따온 신입 유격대원들에게 김일성은 인민에 대한 사랑을 설파한 뒤 그것을 돌려주도록 지도한다. 이후 반성하는 그들을 보면서 김일성은 소학교 시절에 배운 “삼자경”의 첫 구절 ‘人之初, 性本善’¹⁵⁾를 떠올린다.

이러한 그의 복합적 언어·문화 정체성은 만주의 중국공산당 산하 항일연군 활동에서 커다란 이점으로 작용했다. 돈화에서의 혁명 활동을 하면서 김일성은 “낮에는 중국옷을 입고 중국말을 하면서 동무들을 찾아다니였고 밤에는 조선옷을 입고 조선말을 하면서 조직들을 복구”¹⁶⁾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복합적 정체성을 활용했다. 그의 중국어 역량은 오의성 부대 등 중국의 ‘구국군(救國軍)’¹⁷⁾과의 연합을 이루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¹⁸⁾ 이른바 ‘명월구회의’에서 조선어와 중국어로 번갈아가며 선동적 연설을 하여 항일 무장 투쟁 노선을 관철하는 데에서도 빛을 발했다.¹⁹⁾ 그의 중국 문화에 대한 소양은 ‘고려홍군(조선인 유격대)에 적대적인 중국인 마을의 마음을 돌리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김일성 부대는 조선인 유격대에 적의를 보이는 마을에서 학교 마당에 풍금을 내놓고 「소무가」와 「양귀비의 노래」를 불렀다. “중국의 근로민중이 특별히 애창하는 명곡”인 「소무가」는 김일성이 “길림시절에 배운 애국가요였는데 원명은 「소무목양」이다. 소무는 기원전 2세기 한 나라의 신하로 사신이 되어 북쪽의 흉노족들에게로 갔었는데 자신들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숫양이 새끼를 낳을 때까지는 돌아

15) 『세기와 더불어』 5권, 415쪽. ‘사람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다’는 뜻.

16) 『세기와 더불어』 2권, 136쪽.

17) ‘구국군’은 일본의 만주 지배에 반대하는 중국 국민당계 무장 부대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는 1932년 2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동북을 수복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왕덕림이 창립한 항일 부대였다. 왕덕림이 총지휘를 맡았고 오의성이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항일 구국군, 길림 구국군, 중국 국민 구국군, 동북 국민 구국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1935년 후반 위중민이 코민테른 주재 중공대표단에 제출한 보고서에 김일성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위중민은 중국인과 조선인 합쳐 20명 정도 동안 특위 간부의 경력과 그에 대한 평가를 적었는데 김일성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인, 1932년 입당, 학생. 용감하고 적극적. 중국어 가능. 유격대 출신. 민생단이라는 증인이 상당히 많음. 대원들과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대원 사이에 신망이 있고 구국군 사이에서도 신망이 있음. 정치 문제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많지 않음.” 정치 문제에 관한 언급은 다른 사람 평가에도 많이 등장하는 상투적인 표현이다. ‘학생’은 중학교 중퇴 이상이라는 의미이다. 구국군 가운데 신망이 있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水野直樹, 『解放前を中心として』, 水野直樹·和田春樹, 『朝鮮近現代史における金日成』, 神戸學生青年センター 出版部, 1996, 25·29~30쪽.

18) 『세기와 더불어』 3권, 192쪽.

19) 『세기와 더불어』 2권, 252쪽.

가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지만 절개를 굽히지 않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소무가」는 “중국 인민의 애국주의 사상 감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 노래”²⁰⁾였다. 소무의 이야기는 ‘왜’에 사신으로 갔다가 신라에 대한 충성을 지키다 죽은 박제상을 연상시킨다. 중국에서 자라서 그곳에서 활동한 김일성에게는 박제상보다 소무의 고사가 더 익숙했을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기초 교육을 이수한 김일성은 중국어와 중국 고사, 중국의 민중들이 애호한 노래와 문화에 익숙했으며 이를 중국의 구국군이나 중국인 공산주의자들과 관계를 맺고 중국 민중들의 도움을 받는데 활용했다. 그의 복합적 정체성은 그의 책임기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다. 앞에서 제시한 김일성이 읽은 도서 목록에서 명백하게 한글로 된 책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도서들을 제외한 상당수의 책들은 중국어로 된 것일 개연성이 크다. 즉, 그의 언어적·문화적 정체성은 이미 그 출발부터 중국과 조선의 복합적 언어 문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이제 청년 김일성이 본격적으로 공산주의를 받아들였던 길림 시절의 독서를 살펴보도록 하자.

3. 길림 시절의 독서 (1) - 마르크스 원전과 진보적 혁명문학

길림의 육문중학교 시절은 공산주의 청년 김일성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시기였다. 김일성이 길림에 온 것은 1927년 1월 중순 무렵이다. 길림은 “중국 동북지역의 상해”²¹⁾라고 할 수 있는 도시로, 동북지역의 통치자인 ‘장작림’의 동생 ‘장자강’의 독군서가 있었던 봉계군벌의 요충지였다. 물산이 풍부하고 진보적인 사회사상가들이 많이 모여드는 도시였다. 정의부 계통 독립운동가들의 본거지였으며, 다양한 노선을 추구하는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그곳에 운집해 있었다. 다소 길지만 그 자신이 회고하는 이 시절의 독서 경험에 대해서 읽어보자.

20) 『세기와 더불어』 4권, 188쪽.

21) 손원태, 『내가 만난 김성주 - 김일성』, 동연, 2020, 54쪽.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 보다는 맑스, 앵겔스, 레닌, 스탈린의 저작들을 탐독하는데 더 열중하였다. 당시의 중국은 대혁명시기여서 소련이나 일본에서 발간되는 좋은 책들을 많이 번역출판하였다. 베이징에서는 《번역월간》이라는 잡지도 찍어냈는데 거기에 청년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진보적인 문학작품들이 자주 실리었다. 무송이나 화전에서 볼 수 없었던 책도 길림에서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나한테는 책을 살만한 돈이 없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믿기 어렵겠지만 그때 나는 운동화도 학교에 갈 때에만 신고 집에 와서는 거의 맨발로 다니었다.

그때 우마항거리의 도서관에서는 한달에 열람료를 10전씩 받았는데 나는 그 열람권을 달마다 떼가지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도서관에 들러 몇시간씩 책과 신문을 읽곤하였다. 그러면 적은 돈을 가지고서도 여러 가지 출판물들을 볼 수 있었다.

책방에 좋은 책이 들어온 것을 보면서도 돈이 없어 못살 때에는 부자집학생들을 부추겨 사게 하고 그들이 사온 다음 그 책들을 빌려다보곤하였다. 돈많은 집 자식들 가운데는 읽지는 않으면서도 멋을 부리기 위하여 책을 사다가 장식용으로 꽂아 두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 시기 육문중학교에서는 학교관리를 민주주의적으로 하였다. 도서주임도 반년에 한번씩 학생총회에서 선출하였다. 선출된 도서주임은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을 세우고 책을 사들일 권한을 가지었다.

나는 육문중학교시절에 두 번이나 도서주임으로 선거되었다. 그 기회를 리용하여 맑스-레닌주의서적들을 많이 사들였다.

책이 많고 보니 시간이 모자라는 것이 문제였다. 나는 독서 시간을 1분 1초라도 더 얻어내기 위하여 애를 쓰면서 차레진 시간안에 하나라도 더 많은 책을 읽고 그 본질을 깊이 알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내가 중학시절에 밤을 새우며 책을 본 것은 단순한 학구적 취미나 탐구심때문만이 아니었다. 나는 학자가 되고 그 무슨 출세의 길을 뚫으려고 책을 파고든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하면 일체를 물리치고 나라를 찾겠는가? 어떻게 하면 사회의 불평등을 없애고 근로하는 인민들을 잘 살게 하겠는가? 내가 책에서 찾고 싶었던 것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었다.

어디서 무슨 책을 보건 나는 항상 이 해답을 찾으려고 하였다.

맑스-레닌주의를 교조로가 아니라 실천의 무기로 대하게 되고 진리의 기준을 추상적인 이론에서가 아니라 항상 조선혁명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에서 찾으려는 나의 입장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싹텄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시기 《공산당선언》, 《자본론》, 《국가와 혁명》, 《임금로동과 자본》을 비롯한 맑스-레닌주의 고전들과 그를 해설한 도서들을 손에 잡히는대로 읽었다.

정치서적들과 함께 혁명적인 문학작품들도 많이 읽었다. 내가 그때 제일 흥미를 가지고 읽은 것은 고리끼와 로신의 작품이었다. 무송이나 팔도구에 있을 때는 《춘향전》, 《심청전》, 《리순신전》, 《서유기》와 같이 옛날생활을 담은 책들을 많이 읽었다면 길림에 와서부터는 《어머니》, 《철의 흐름》, 《축복》, 《아이큐정전》, 《압록강가에서》, 《소년방랑자》와 같은 혁명적인 소설들과 당시의 현실생활을 담은 진보적인 소설들을 많이 읽었다.

훗날 항일무장투쟁을 하면서 고난의 행군과 같은 어려운 시련에 부딪혔을 때에도 나는 길림시절에 본 《철의 흐름》과 같은 혁명적인 소설들의 내용을 회상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곤하였다. 문학작품은 사람들의 세계관 형성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래서 나는 작가들을 만날 때마다 혁명적인 소설들을 많이 써내라고 말하곤 한다. 지금은 우리 작가들도 혁명적인 대작들을 많이 써내고 있다.²²⁾ (밑줄: 인용자)

길림 시절 김일성의 책읽기는 맑스주의 원전과 혁명적이고 진보적인 문학작품 중심의 독서로 이루어졌다. 육문중학교의 도서주입으로 선출된 김일성은 그 권한으로 맑스주의 서적을 사들였다고 회고한다. 그가 이렇게 사들여서 읽은 책들은 “『공산당 선언』, 『자본론』, 『국가와 혁명』, 『임금로동과 자본』을 비롯한 맑스-레닌주의 고전들과 그를 해설한 도서들”이었다. 김일성은 무송과 팔도구에서는 조선어 이야기책들을 읽었고, 육문중학교에 와서는 중국어 서적을 읽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 선언』이 중국에서 처음 번역된

22) 『세기와 더불어』 1권, 207~210쪽.

것은 1920년 8월 진망도(陳望道)가 상해에서 완역한 판본이다.²³⁾ 중국 중학교의 도서관에서 구입한 도서이니만큼 도서주임의 권한으로 김일성이 사들인 마르크스 원전들은 중국어 번역이었을 것이고, 그가 읽은 『공산당 선언』도 진망도의 완역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²⁴⁾ 그 시절 중국 공산당원들의 사회주의 입문 경로와 유사하게 김일성도 중국어 판본 『공산당선언』 등을 읽으면서 혁명 운동에 입문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회고하는 맑스주의 고전 독서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곱씹어 볼 여지가 있다. 1912년생인 김일성은 육문중학교 시절 16세 남짓의 청소년이었다. 아무리 명민한 소년이라도 『자본론』 등과 같은 난해한 맑스주의 원전을 제대로 읽고 이해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심을 예상한 듯이, 김일성은 자신의 ‘자본론 교사’였던 박소심에 대한 회고를 남겨 두고 있다. 박소심은 “일본어로 번역된 『자본론』을 밤을 새워가며 읽”곤했던 지독한 독서가로 “통속입문서 몇 권을 읽고 맑스-레닌주의 리론가로 으스대는 행세군이 아니라 맑스나 레닌의 주요 저작들을 거의 통달하다싶이한 사람”²⁵⁾이었다. 회고에 따르면, 소년 김일성은 난해한 『자본론』에 대한 박소심의 해설 강의를 듣고 이해했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박소심과의 토론 중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나 계급 해방과 민족 해방의 선후 문제에 대한 맑스의 기본 해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러한 김일성의 명민함에 감복하여 박소심이 ‘타도제국주의동맹’의 조직원이 되어 김일성 자신의 영도를 받게 되었다고 회고한다. 사회주의 독서회에서 맑스-레닌주의 이론을 가르치는 교사가 배우는 자에게 영도를 받는다는 건 그리 상식적이지 않다. 이러한 회고를 통해서 이미 소년기부터 맑스주의 이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탁월한 주체적 사상가의 자질을 보였던 김일성을 강조하는 그의 자기상 구축의 방식을 엿볼

23) 중국에서 『공산당 선언』의 번역에 대해서는 썬우전환, 한성구 옮김, 『번역과 중국의 근대』, 궁리, 2021, 565-574쪽 참조.

24) 식민지 조선에서도 1921년 <공산당선언> 85부가 번역 발행되었다. (박종린, 『사회주의와 맑스주의 원전 번역』, 신서원, 2018, 33쪽) 김일성의 언어적 문화적 환경을 감안하면 김일성이 읽었다고 하는 맑스주의 원전은 중국어 번역본이었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25) 『세기와 더불어』 1권, 217쪽.

수 있다.

길림 육문중학교 시절 김일성 독서의 또 하나의 축은 문학 작품 읽기이다. 그는 이 시절 고리키와 루쉰의 작품들을 애독했고, 특히 장광자(蔣光慈)의 『압록강가에서』, 『소년 방랑자』와 세라피모비치의 『철의 흐름』을 감명깊게 읽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김일성은 길림 시절 당시 자신의 문학 작품 읽기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인 육문중학교 어문교사 상월(尙鉞)에 대해서 길게 서술하고 있다. 김일성은 상월 선생이 육문중학교에 부임한 첫 수업에서 단 한 시간만에 120회에 달하는 『홍루몽』의 “본질을 추리고 거기에 중요한 생활세부들을 끊임없이 섞어가며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솜씨”를 선보였으며, 그 강의를 통해 “그 소설이 가지고 있는 생리와 가부장적 전통이 지배하는 한 귀족가문의 조락과정을 순간에 완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이후 교사 상월은 학생들의 인기를 독점하게 되었고 김일성도 그의 집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가에 꽂힌 수 백 권의 책 중에서 상월이 추천하는 책을 빌려 읽었다. 김일성은 그에게서 앞서 언급한 문학 작품 대부분과 『진독수 선집』을 빌려 읽었다.²⁶⁾

상월은 1921년 북경대학에서 영국문학을 전공했고, 루쉰이 편집하던 잡지 『망원』에 소설 「부배집」을 발표한 작가이기도 했다. 상월은 김일성에게 자신이 존경하던 루쉰과 고리키의 작품과 더불어 동시대 작가였던 장광자²⁷⁾의 『압록강가에서』와 『소년 방랑자』를 추천했다. 장광자는 1921년 코민테른 제 1차 대회 참가자 중 하나였으며, 『압록강가에서』는 1927년 1월에 상해 아동도서관(亞東圖書館)에서 출간된 것이다. 이 소설은 러시아의 한 학교 기숙사로 사용되는 수녀원에서 눈 내리는 어느 한 밤, 중국과 이란 출신의 유학생

26) 『세기와 더불어』 1권, 222~252쪽

27) 장광즈(蔣光慈, 1901~1931) 본명은 장루형(莊如恒)이며 장광츠는 필명의 하나이다. 중국 근대의 지명인 시인이자 소설가로서 안후이(安徽)성 휘치우(霍邱)에서 태어나, 1921년 모스크바 공산주의 노동대학교를 다녔으며 1921년에 중국공산당에 가입, 1924년 귀국 후 상해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근무하였다. 1928년 좌익문학단체인 태양사 창립에 참여하였으며 『태양월간』, 『탁황자(拓荒者)』 등 다수의 문예지를 주관하였다. 1930년 3월, 중국좌익작가연맹 성립 당시 후보 상무위원으로 피선되었으며, 1931년 8월에 폐렴으로 작고하였다. 대표작으로는 장편소설 『포효하는 대지(咆哮了的土地)』(1930)가 있다. 이상은 홍정선·최창록 엮음, 최창록 옮김, 『중국문학 속의 한국』, 소명출판, 2017, 14쪽 참조.

에게 조선 출신의 유학생 이맹한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압록강가 화목한 가정의 외아들로 자란 이맹한과 그의 연인 윤고는 아름다운 유년기를 보낸다. 하지만 식민지가 된 마을에서 일본 경찰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맹한의 아버지가 배후로 지목되어 총살당한다. 맹한의 어머니도 충격으로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하자 고아가 된 맹한을 윤고의 아버지가 거두어 기르고 이후 일본 경찰의 주목을 받게 된 맹한은 중국 땅으로 떠나게 된다. 중국을 전전하던 맹한은 혁명의 땅 러시아로 향하고 그곳에서 연인이었던 윤고가 파업에 참여하다 검거되어 재판정에서 항거하다가 사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회상을 마친 맹한은 윤고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치고 압록강변에서 헤어질 때 맹한에게 “자유조선이 실현될 날은 꼭 올거예요”²⁸⁾라고 격려했던 윤고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소설은 끝을 맺는다. 코민테른 1차대회에 참가했던 장광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이들 등장인물들은 모스크바의 동방로력자대학과 같은 혁명가 양성 학교에 유학했던 다양한 민족 출신의 청년 공산당원들이었을 것이다. 상월은 주인공인 이맹한과 윤고가 조선인이었기 때문에 이 소설을 자신을 따르는 조선 소년 김일성에게 권했을 것으로 보인다.²⁹⁾

세라피모비치의 『철의 흐름』 또한 김일성이 반복적으로 회고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볼셰비키 혁명 이후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적군과 백군의 내전 상황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카자크 족은 제정 러시아의 특수 군사신분을 이루며 국경 지대 방어와 제국 내부의 소수민족들 간의 경계 방어 등에 활용되었다. 18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러시아 제국이 참전한 다양한 전쟁들에 동원되었고,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볼셰비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며

28) 원작 장광자, 각색 김혜선, 『그림책』압록강가에서, 금성청년출판사, 2006, 48쪽.

29) 상월 선생과의 후일담은 김일성의 회고록에서 전하는 것과 관련자의 증언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상월은 육문중학교에서 쫓겨난 뒤 중국혁명에 종사하고 건국 후 문화대혁명 때 꺾박 받아 그 아내가 자살하는 등의 시련을 겪었다. 김일성의 회고록에서는 상월 선생의 이러한 시련은 생략된 채 연락이 닿지 않았다가 상월의 사후에 그의 두 딸을 김일성이 북한에 초청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상월을 알고 있던 다른 이의 증언을 취재한 연구에 따르면 상월은 문화대혁명의 시련 때 김일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 번의 편지를 보냈지만 답신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유순호, 『김일성 1912-1945 상권-성장과 시련』, 서울셀렉션, 2020, 129~132쪽.

반볼셰비키 백군의 주축을 이루었다.

이 소설은 러시아 내전 시기 카자크 군을 주축으로 한 백군에게 쫓기는 지역 혁명군과 그들을 따라가는 농민 대중들의 곤경을 그리고 있다. 뒤에서는 카자크 군이 쫓고 있고 볼셰비키 혁명 주력군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인민들의 선거로 지역 혁명군 사령관에 선출된 주인공 꼬주흐는 갖은 고난 속에서도 행군을 독려하여 그들을 위험에서 구해낸다. 카자크 지역의 하층 농민 출신인 꼬주흐는 장교가 될 충분한 역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 때문에 탈락을 거듭하다가 간신히 임명을 받은 인물로 소개된다. 소비에트 혁명 당시 말단 장교였던 그는 사회주의 혁명의 편에 섰고 주변 지휘자들의 갖은 비난과 피난 대오의 동요 속에서도 정확한 정세 판단과 굳건한 의지로 군대와 인민들을 이끈다.³⁰⁾ 김일성이 이 작품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잠시 살펴보자.

그런데 몽강현 남패자로부터 장백현 북대정자에 이르는 행군은 행군기간으로 보나 그 간고성으로 보나 종래의 행군들과는 대비도 할 수 없는 간고한 행군이었습니다. 행군기간이 100여일이나 되기 때문에 이 행군은 <100일 행군>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기간을 보면 사실 110여일이나 되는 행군이었습니다. 고생이 너무도 막심했기 때문에 그 행군을 가리켜 <고난의 행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나는 지난날 행군에 대해서 쓴 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철의 흐름》 같은 작품은 영화로도 보고 소설로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행군과 같이 간고하고 극절 많은 행군에 대해서 서술한 글은 아직 한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중학시절에 《철의 흐름》이란 장편소설을 읽고 세상에 이처럼 고생스런 행군도 다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꼬주흐가 중첩되는 고난을 뚫고 나가는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을 겪고 나서는 그것이 우리가 체험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³¹⁾

30) 아·쓰·셰라피모위츠 작, 김시학 번역, 『철의 흐름』, 국립출판사(평양), 1955.

31) 『세기와 더불어』 7권(계승본), 151쪽.

김일성은 항일유격대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에 중학 시절 읽었던 이 소설을 떠올리며 힘을 얻었다고 밝히고 있다.³²⁾ 이 소설을 영화로도 보았다고 언급하거나 그의 삶에서 이 소설의 독서 체험은 꽤나 강렬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코주호에게 자기 자신을 투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인민대중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며 이동하는 코주호와 그의 군대는 유격구에서 대중들을 기반으로 일본 및 만주국 군대와 전쟁을 하고 있는 김일성과 유격대의 모습과 겹친다. 이처럼 중학생 김일성은 마르크스주의 원전과 더불어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과 사회 혁명을 다룬 진보적인 문학을 읽으며 공산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갔으며, 그 독서 체험이 그의 삶의 고비마다 소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길림 시절의 독서 (2) - 민족주의와 관련된 독서의 편린

청년 김일성에게 민족주의란 무엇이었을까? 회고록에서 김일성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원전을 경직되게 이해하며 국제당의 노선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교조적 공산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지주와 지식인 등을 아우르는 민족통일전선을 일관되게 지향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일성은 여러 층위의 민족주의를 구분하고 그 중에서도 민족과 국가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는 민족주의를 ‘애국주의’라는 범주로 수렴하여 민족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식민지 조선의 역사적 사회주의의 여러 분파들을 사후적으로 조망하고 비판하면서 구축된 최후의 승리자의 서술일까? 아니면 청년기부터 그가 경험하고 사유하며 획득한 당대적 관점일까?

사후적으로 보다 명료하게 구성된 것일 개연성이 크지만, 적어도 청년기에 그가 가지고 있던 경험 및 사유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도 부정하기는 어려

32) “2만 5천리장정 때 중국동지들이 가족띠를 우려먹었다고 한다. 우리도 쌀이 없을 때는 가족띠를 우려 물이 식량을 대신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남비에 넣고 끓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행군이 이렇게 간고하다니 어떤날은 길림시절에 읽은 장편소설 <철의 흐름>에 반영된 생활들을 되그려보며 힘을 가다듬기도 했다.”(『세기와 더불어』 3권, 412쪽)

워 보인다. 회고록에서는 길림 시절에 소년 김일성이 느꼈던 민족주의에 대한 태도를 읽을 수 있는 독서 기록들이 산재해 있다. 그 중 루쉰과 간디를 매개 삼아 그가 생각한 민족주의에 대해서 가늠해 보자. 김일성은 회고록에서 사도구 마을에서 간디를 숭배하는 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촌로로부터 전해 듣고 자신이 길림 시절 읽었던 간디의 편지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가 기억하고 있는 간디의 편지 원문은 다음과 같다.

사랑하는 친구여!

나는 당신들의 편지를 받았나이다. 내가 보낼 유일한 부탁은 절대적으로 참되고 무저항적인 수단으로 조선이 조선의 것으로 되기를 바란다는 것뿐입니다.

1926년 11월 26일 사바르마티에서 엠. 케이. 간디³³⁾

김일성은 이 편지가 『조선일보』 지상에 실렸다고 기억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아일보』 1927년 1월 5일자에 게재된 것이다.³⁴⁾ 김일성은 간디의 편지를 보고 그의 『자본론』 교사였던 박소심과 무저항주의를 논평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길림의 교포 청년들 속에서는 간디의 사상을 자기의 신앙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지만, “무력항쟁을 포기하였거나 독립운동의 길에서 탈락한 일부 민족운동자들에게서 일정한 공명과 지지를 받았”³⁵⁾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일성은 간디의 이 사상이 인도의 현실에 부합하여 인도 대중들의 호응을 받는 측면이 있지만 “인도는 인도이고 조선은 조선”이라며, “강도들하고는 무혈이라는게 있을 수 없습니다. **미친개는 똥둥이로 다스려야 합니다!**”³⁶⁾라고 노인에게 설파하고 있다.

유격대 시절의 이 일화에는 길림의 학생 시절 그가 읽었던 독서의 편린이 드러나 있다. 즉, 김일성 등의 길림의 조선인 청년들은 『동아일보』와 『조선

33) 『세기와 더불어』 4권, 113쪽.

34) 간디의 편지 기사의 제목은 「朝鮮이 朝鮮의 것 되기를 바랍뿐입니다.」(『동아일보』, 1927년 1월 5일자)였다.

35) 『세기와 더불어』 4권, 113쪽.

36) 『세기와 더불어』 4권, 114쪽.

일보』 등의 조선의 저널리즘을 통해 당시 조선 상황과 담론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그러한 간디의 ‘무혈’의 사상이 조선의 상황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면 ‘미친개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루쉰이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에서 사용한, 사람을 무는 개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는 구절을 연상시킨다. 김일성은 당시 조선의 저널리즘을 통해 조선 현실을 인식했으며, 동시에 열독하고 있던 루쉰의 작품과 문장을 활용해 무력항쟁을 포기하거나 민족운동에서 이탈한 자들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현했다는 사실을 읽어낼 수 있다.

민족운동에서 이탈한 민족주의자에 대한 김일성의 강한 비판 의식은 이광수에 대한 그의 논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길림의 중학생 시절 김일성은 이광수의 작품을 꽤나 인상적으로 읽었던 듯하다. 조금 길지만 회고를 읽어 보자.

우리는 그때 학생들을 끌기 위하여 도서실에 련애 소설도 가져다놓았다.

청년들은 련애소설들을 읽는 멋에 도서실 출입을 많이 하였다. 그런 식으로 책에 맛을 붙이게 해놓고는 사회과학책을 조금씩 주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사회과학 책들을 보면서 점차 각성되면 그때에는 비밀서고에서 맑스-레닌주의고전들과 혁명적인 소설책들을 꺼내주곤하였다.

우리는 그때 청년학생들에게 《재생》, 《무정》, 《개척자》와 같은 리광수의 소설책도 주었다. 리광수가 3·1운동 전야에 일본 도쿄에서 《2·8독립선언서》도 작성하고 독립운동에 투신하면서 진보적인 작품도 많이 썼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의 소설을 즐겨 읽었다. 그러나 후에는 변절하여 교양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쓰지 못하였으며 나중에는 《혁명가의 안해》와 같은 반동적인 작품까지 써냈다. 나는 항일유격대를 창건한 다음 부대를 인솔하고 남만으로 가다가 무송에 잠깐 들린 기회에 그 소설을 읽어보았다. 소설 《혁명가의 안해》는 한 공산주의자가 병치료를 하고 있을 때 그의 안해가 남편의 병치료를 해주러 다니는 의학전문학교 학생과 처징관계로 맺는 추잡한 생활을 그린 작품으로서 공산주의자들을 모독하고 공산주의 운동을 헐뜯는 사상으로 일관되어 있었다.³⁷⁾

“내가 《민족개조론》을 읽고 제일 불쾌하게 생각한 것은 리광수가 조선민족을 열등한 민족처럼 여기고 있는 점이였다. 나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는 생각은 해 봤지만 조선민족을 열등한 민족이라고 여긴적은 한번도 없었다.

조선민족은 세계최초의 철갑선과 금속활자를 창조한 문명하고 슬기로운 민족이며 동방문화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우리 조상들은 일본문화의 개척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외적의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강건한 자위정신은 일찍이 아세아만방에 맹위를 떨치었고 백지장처럼 깨끗한 우리 인민의 도덕은 세계의 찬탄을 자아냈다.

우리 인민의 인습이나 풍속 가운데는 물론 부족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이고 부차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 부차적인 것을 가지고 민족성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리광수는 《민족개조론》에서 마치 조선사람들이 <열악한 민족성> 때문에 망한 것처럼 말하였는데 조선이 망한 것은 낙후한 민족성 때문이 아니라 통치배들의 부패무능 때문이었다.

조선민족이 <열등>하다고 개탄하는 리광수의 론조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론조와 일맥상통하였다. 일본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우리 민족을 <열등한 민족>이라고 비방하였다. <열등>하기 때문에 일본이 <보호>, <지도>, <통제>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민족개조론》은 일본제국주의 강점자들에게 보내는 리광수의 공개전향문이나 다름없었다. 이 전향문을 쓴 대가로 그는 지난날 독립운동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총독부코앞에서 뼈저티 울방자를 틀고앉아련애소설들을 써내고 있었다.

소설가로서의 리광수는 초기에 독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대중이 그를 사랑한 것은 그가 독자들의 구미에 맞는 진보적인 작품을 써왔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나라 현대소설의 개척자라고 불리울만큼 새로운 양상의 소설을 많이 써냈다.

그러나 《민족개조론》으로 하여 리광수에 대한 대중의 애정에는 금이 가기 시

작했다. 그의 소설작품들에서 엿보이던 개량주의적 요소가 완전히 자기의 형체를 가지고 이 문문에 등장한 것이다.³⁸⁾ (밑줄: 인용자)

김일성은 이광수가 「2·8독립선언서」를 쓰고 독립운동에 투신했으며, “독자들의 구미에 맞는 진보적인 작품을 써왔”던 “현대소설의 개척자”였으나 「민족개조론」이라는 공개전향문을 쓰고 타락한 변절자라고 정리하고 있다. 그의 회고의 맥락에서 이해하자면, 『재생』, 『무정』, 『개척자』 등은 이광수의 진보적인 작품이며 그 책들을 즐겨 읽었던 청년들 중에는 김일성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김일성은 「민족개조론」을 통해 전향한 타락한 이광수가 쓴 「혁명가의 안해」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들을 모독하고 공산주의 운동을 헐뜯는 사상으로 일관”한 ‘반동 작품’이라고 격렬한 증오의 감정을 표하고 있다.

「혁명가의 안해」에 대한 불만은 이후 김일성이 각본을 썼다고 주장하는 「피바다(혈해지창)」 창작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³⁹⁾ 회고록에서 김일성은 이른바 동강회의 이후 유격대원 이동백이 가져온 문예잡지에서 감옥에 간 사회운동자의 아내가 어린 아이를 남에게 맡기고 개가한 것을 즐거리로 하는 소설을 보게 되었다고 술회한다. 그는 이동백에게 “리광수와 같이 혁명가의 안해들을 모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민족개조론」을 발표했을 때 서울 장안에서 맥주병세례를 받은 것처럼 빨래방치의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⁴⁰⁾라며 진정한 혁명가의 아내와 어머니, 누이들을 형상화하는 작품으로 「피바다」를 쓰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세기와 더불어』는 그것이 서술되고 있는 1990년대의 김일성의 시점이 과거의 모든 대목에 편재되어 있는 텍스트이다. 따라서, 소년 김일성의 경험이 역사 해석의 유일한 권위로 자리잡은 1990년대 김일성의 관점에서 재진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무송 시절의 김일성은 동시대 청년들처럼 이광수 작품에 큰 흥미를 가졌고, 그만큼 이후 이광수의 전향과 「혁명가

38) 『세기와 더불어』 1권, 290~291쪽.

39) 『피바다』의 여러 이본과 작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종현, 「『피바다』와 ‘주체문예이론’의 관련 양상 - 이본(異本), 작자 및 통합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25, 2002를 참조.

40) 『세기와 더불어』 5권, 44쪽.

의 아내」의 창작을 커다란 타락이자 공산주의자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⁴¹⁾ 여기서 무엇보다 김일성의 회고록에서 이광수가 가장 자주 언급되는 작가라는 점을 각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서사학의 이론을 빌려 말하자면, 스토리 시간에서 한 번 일어난 사건이 텍스트 시간에서 서술되는 빈도는 곧 그 사건의 중요도 혹은 강렬함의 증거이다.⁴²⁾ 『세기와 더불어』에 나타난 이광수 작품에 대한 언급의 빈도는 소년 김일성이 이광수 작품에서 받은 영향의 강도를 가늠케 한다. 강한 애정이 배신당했을 때 그 증오도 더욱 강렬해 지는 법이다. 소년기에 읽었던 이광수 작품의 나름의 진보성을 인정하면서, 「민족개조론」과 「혁명가의 아내」에서 느낀 배신감을 토로하고, 「피바다」 창작의 동기가 이광수적인 왜곡에 대한 대항이었다는 만년의 회고는 이광수에 대한 독서 체험의 강렬함을 증거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길림 시절을 전후한 김일성의 독서 체험과 민족주의의 관련을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가 바로 『개벽』에 대한 언급이다. 김일성은 박인진 등 조선 북부 지방의 천도교 인사들과 인연을 맺은 사연과 그 자신이 천도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점을 상세히 밝혀 놓고 있다. 김일성은 천도교 잡지였던 『개벽』에 대해 “종합적인 정치 시사 잡지로서의 체모를 잃지 않고 민족의 계몽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고평한다. 이어서 자신이 읽은 『개벽』의 기사들에 대해서 다음처럼 회고하고 있다.

나는 《개벽》에서 길림시절에 내가 잘 알고 있던 론적인 신일용의 글도 보았다. 그는 1920년대 중기의 농촌문제에 완전히 심취되어있었다. 신일용이 잡지에 발표한 《농촌문제의 연구》라는 논문은 이론적 깊이가 있는 글이었다.

41) 김일성의 회고를 읽으면서 새삼 이광수의 작품이 한반도 안팎의 청년들에게 끼친 영향을 확인하게 된다. 만주 일대에서 성장기를 보낸 김일성을 비롯하여 용정 출신의 시인 심연수의 1940년 한 해 동안 쓴 일기 자료에서도 이광수의 작품을 읽고 영향을 받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광수가 한국문학에 끼친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한 결과물인 박현호 편, 『센티멘탈 이광수』(소명출판, 2013)의 논의는 조금 더 확장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광수가 동시대 중국과 만주의 조선인 청년들에게 끼친 영향과 그것이 북한 사회와 어떻게 접속되는가라는 문제가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42) S. 리본 케넌, 『소설의 현대 시학』, 예림기획, 1999.

《개벽》에는 세계 각국의 문물을 소개하는 글들도 많이 실리었다. 그런 글들중에서 제일 인상깊었던 것은 고유수인가 오가자인가에 있을 때 본 《남만주행》이라는 기행문이다. 《남만주행》은 리돈화가 쓴 글인데 만주지방의 자연풍경과 중국사람들의 생활풍습, 무순탄광로동자들의 참혹한 생활처지와 우리 나라 독립운동자들의 활동 형편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었다. 그 기행문에 의하면 남만주지방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죽으면 관에 넣어 땅에 묻지 않고 밖에 놓아두며 나이가 7살이 못된 어린이가 죽으면 거적에 싸서 나무에 매달아놓는 별스러운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개벽》에 실린 여러 가지 종류의 기사들 중에서 독자들의 구미를 제일 강하게 자극한 것은 애국주의를 고취하는 내용의 글들이었다. 잡지에는 《조선민족만이 가진 우월성》, 《고구려국민의 기상과 노력》, 《천혜가 특대한 조선의 지리》 등 조선의 력사와 지리, 자연경개와 지방별 특성이며 물산을 자랑하는 글들이 자주 실리었다. 《8도대표의 8도자랑》도 바로 그런 글들 중의 하나였다.

《8도대표의 8도자랑》이란 조선 8도의 대표들이 저마다 나와서 자기 도의 자랑을 하는 것을 엮은 것이었는데 그 골자는 어느 실학사상가가 평하였던 8도 사람들의 기질평가에서 취하고 있다. 거기에서는 평안도 사람들의 기질을 <맹호처럼>이라고 규정하였다. 기상은 <수풀에서 나오는 범>같으나 뒤가 조금도 없는 평안도 사람이 나와서 자기고장 자랑을 하는가 하면 <니전투구>, 다시 말하여 <진창에서 싸우는 개>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미를 가진 함경도의 <조알개>라는 사람이 조종의 산 백두산이 바로 함경도에 있다는 것으로 운을 쓸쩍 떼고는 입에 침이 마르게 자기 도의 자랑을 늘어놓는 등 8도 사람들의 특징을 어찌나도 방불하게 그려냈던지 글을 읽으면서 웃지 않을 수 없었다. (……) 《개벽》에 실린 인기 기사들 가운데는 《외국인이 본 조선의 인상》이라는 글도 있다. 그 글은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미국, 로씨야,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사람들의 조선에 대한 인상을 <제에는 세계 제일>, <3대감탄>, <례의가 천하제일>, <조선의 4대미>, <조선에 대한 7대 신조>, <자연미 인정미>, <조선인의 인상>과 같은 식으로 짤막짤막하게 기록하였다. 외국인의 시점에서 본 조선을 조선사람의 시점에서 다시 음미해 보는 것은 참으로 호뭇하고 유쾌한 일이었다.⁴³⁾

김일성이 『개벽』의 글들에 대해서 한 회고는 특히나 인상적이다. 김일성은 초창기 조선공산주의 운동의 이론가 중 하나였던 신일용이 쓴 「농촌 문제의 연구」, 천도교의 이론가인 이돈화의 「남만주행」을 비롯하여 「조선민족만이 가진 우월성」, 「고구려국민의 기상과 노력」, 「천혜가 특다한 조선의 지리」, 「8도 대표의 8도 자랑」, 「외국인이 본 조선의 인상」 등의 기사를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기사들이 모두 『개벽』 1925년 7, 8월호에 함께 실린 글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김일성은 이 글들을 언제 읽은 것일까? 1925년은 김일성이 14세 무렵이다. 이 시기에 그는 평양의 창덕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이 때 본 잡지들의 인상이 강하게 남아 있을 수도 있으며, 아니면 천도교도가 숙장을 맡았던 화전의 화성의숙 시절에 과월호를 본 것일 수도 있다. “고유수인가 오가자인가에 있을 때” 「남만주행」을 읽었다는 김일성의 회고를 그대로 따르자면 그가 유격대 활동을 시작한 뒤에 과월호 형태로 있던 『개벽』 1925년 7, 8월호를 우연히 읽었을 수도 있다.

이처럼 길림 시절을 전후한 시기에 읽은 책과 그에 대한 감상을 통해서 김일성이 이광수 등의 민족주의적 정서가 담긴 소설, 『개벽』에 실린 민족적, 지역적 특성과 관련한 글들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길림 시절은 김일성의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이 함께 배양되었던 시기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5. 유격대 시절의 책읽기와 교조주의 비판

김일성은 낮에는 총을 쏘며 싸우면서도 밤에는 책을 읽고 토론하는 항일 유격대 시절을 회고한다. 그는 유격대 시절 치열하게 책을 읽었다고 반복적으로 회고하고 있지만, 읽은 책이 무엇이었는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

43) 『세기와 더불어』 5권, 383쪽.

하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룡호산에서 토벌에 쫓겨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만난 농촌 유지인 마노인의 호의로 그 산막에서 기거했던 시절을 회고하는 장면은 그 사례이다. 사냥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지만 학식이 풍부한 마노인이 산막에 가져다 놓은 소설책과 정치서적 및 위인들의 전기를 읽었다고 회고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들이었는가는 밝히고 있지 않아 알 수 없다.⁴⁴⁾ 그 외에도 유격전의 와중에도 새벽 두 시에 일어나서 책을 읽었다거나 백두산 밀영에서의 독서 등을 회고했지만 읽은 책의 구체적인 제목을 적지는 않았다.

이처럼 유격대 시절의 회고에서는 읽은 책의 제목을 추출하기는 어렵지만, 김일성에게 압도적인 영향을 끼친 한 권의 책(이야기)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지』가 바로 그 책이다. 김일성은 자신의 유격전 이론을 만드는 데 『삼국지』가 큰 역할을 했다고 밝힌다. 하지만 이 책이 끼친 영향은 유격전 이론에 참조된 것 이상인 듯하다. 앞서 이광수와 그의 작품이 김일성의 회고록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빈도를 통해 그 체험의 강도를 가늠한 바 있다. 『삼국지』는 김일성의 회고에서 등장하는 빈도에서도 다른 어떤 책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잦거니와, 김일성의 언어와 사상에 스며들어 있다고 말해도 좋을 만큼 여러 상황에서 활용되고 있다.

김일성은 유격대가 구국군과 연합하여 항일전선을 구축했던 장면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수백명의 대오가 『삼국지』에 나오듯이 ‘우사령’이라고 쓴 기발을 날리며 위풍당당하게 행군해 오고 있었다”⁴⁵⁾고 적고 있다. 또한, 수천명에 달하는 토벌대의 대병력을 돌파하고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진 유격대”를 두고 적 사병들 속에서 “조선빨찌산에는 제갈량을 찜찜먹을 도사가 있다”⁴⁶⁾는 등의 요인들이 유포되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유격대의 신출귀몰한 행적을 강조하는 그의 언어에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최상의 자부심과 관련하여 『삼국지』의 제갈량이 언급되는데, 이는 회고록 전반에서 확인가능하다.

44) 『세기와 더불어』 2권, 446~451쪽.

45) 『세기와 더불어』 2권, 285쪽.

46) 『세기와 더불어』 6권, 34쪽.

김일성은 자기 자신의 사상을 인민 대중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라고 강조하면서 항일 유격대 시절 만주 지역 인민 대중들의 지혜로운 반일 행위를 통해 도움을 받은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한다. 이 때에도 김일성은 그러한 인민에 대하여 “내가 보건대는 인민이 제갈량입니다.”⁴⁷⁾라는 한 마디로 정리하고 있다.

김일성은 『삼국지』의 서사적 내용은 물론 그 이야기를 전승하는 형식까지도 유격대 활동의 원천으로 활용했다. 잠시 길림 시절 그의 『삼국지』 체험의 장면을 확인해 보자.

어느날 나는 목이 아파서 짐질을 하느라고 수업에 참가하지 못한적이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복산에 들렀더니 소경주위에 술한 사람들이 모여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소경이 낙두리 같은 것을 해가며 《삼국지》의 한 대목을 뜯김으로 엮어내고 있었다. 그는 제갈량이 피를 써서 적진을 일격에 무찌르고 들어가는 장면 같은데서는 북까지 치면서 흥을 돋구었다. 그러다가 재미나는 대목에 이르러 이야기를 딱 그치고는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내라고 손을 내밀었다. 그때 중국사람들은 이런 것을 <당수>라고 하였는데 군중을 끄는데서는 좋은 방법이었다.

그후부터 우리도 이런 식으로 혁명사상을 보급하였다.⁴⁸⁾ (밑줄: 인용자)

중국 민중들에게 애호되던 ‘당수’란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전기수의 소설 구연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당수’가 대중의 흥미를 돋우며 집중시키는 그 형식을 유격대 활동을 하면서 대중들을 계몽시키는 방식으로 활용했다고 회고하고 있는 셈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또렷이 기억하는 삼국지의 서사가 “제갈량이 피를 써서 적군을 일격에 무찌르고 들어가는 장면”

47) 『세기와 더불어』 5권, 125쪽. 이러한 표현은 계승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제갈량도 이튿날 재사이기는 하지만 인민대중은 그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세기와 더불어』(계승본) 7권, 86쪽. 당시 국제당의 열하원정 결정에 대해 비판하면서 대중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심금을 울리지 못하는 노선과 방향이 의미가 없다는 설명을 하면서 사용하는 수사이다.

48) 『세기와 더불어』 1권, 214~215쪽.

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중학생 시절에 그가 목격한 ‘당수’의 서사가 바로 그 장면이었기 때문이겠지만, 어쩌면 그가 삼국지의 서사에서 가장 매력을 느꼈던 인물과 장면이 바로 그것일지도 모른다. 김일성은 이후 『삼국지』 등을 통해서 ‘적군을 일격에 무찌르고 들어가는’ 유격대 전술을 창안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김일성은 이른바 ‘겨울명월구회의’에서 유격전 노선을 결정했으며, 이러한 구상을 했던 이유와 그것에 도움을 준 책들을 다음과 같이 거론하고 있다.

레닌은 유격전을 대중운동이 이미 실지로 폭동에 이르렀을 때나 또는 국내전쟁에서 대전투와 대전투사이에 얼마간 중간기가 닥쳐오고 있을 때 불가피적으로 나타나는 보조적인 투쟁형태로 규정하였다. 레닌이 유격전을 기본전투형태로 보지 않고 일시적이며 보조적인 투쟁형태로 본데 대하여 나는 매우 이쉽게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흥미를 가지고 탐구에 탐구를 거듭한 것은 정규전이 아니라 유격전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상비적인 혁명투력에 의한 유격전을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무장투쟁의 기본형식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투쟁형태가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하겠는가 적합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많은 생각을 하여 보았다. 그 과정에 《손자병법》도 보고 《삼국지》도 다시 보았다. 우리 나라의 병서들 가운데서는 《동국병감》이나 《병학지남》과 같은 것을 보았다.

유격전의 시원이 기원 400년대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유격전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서는 알 도리가 없었다.

팜스와 앵겔스가 제일 흥미를 가지고 연구한 유격전은 1812년 로블전쟁시기의 로씨야농민무장부대의 활동이었다. 로블전쟁이 낳은 빨찌산 영웅 제니스 다위도브, 정규부대와 빨찌산의 연합작전을 능숙하게 지휘한 꾸뚜조브 장군의 이야기는 유격전으로 불리는 나의 호기심을 더욱 부채질해주었다.

유격전을 기본형식으로 규정하는데 있어서 임진조국전쟁은 나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었다. 나는 임진조국전쟁을 승리로 장식한 의병들의 투쟁을 유격전의 력

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하나의 모범이라고 간주하였다. 광재우, 신돌석, 김응서, 정문부, 서산대사 그리고 최익현, 류린석 등 의병출신 명장들이 발휘한 용감성과 다양한 전투방법은 나를 완전히 매혹시키었다. 유격전이라는 말은 발톱까지 무장한 일본제국주의자들과의 대전을 눈앞에 둔 나의 심혼을 온통 틀어잡고 놓아주지 않았다.”⁴⁹⁾ (밑줄: 인용자)

김일성은 유격전을 ‘일시적이고 보조적인 투쟁형태’로 인식한 레닌의 견해를 비판하며 유격전을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한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손자병법』과 『삼국지』 등을 다시 보고 조선의 병서인 『동국병감』과 『병학지남』을 보았다고 적고 있다. 김일성은 이 당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과 같은 책도 이름만 알고 있을 정도였고⁵⁰⁾, 유격전의 전술은 자신의 경험과 『손자병법』, 『삼국지』 등의 동아시아적 전통과 조선의 병서 및 의병 투쟁 등 자기 전통 속에서 끌어낸 결과라고 강조한다. 김일성은 무장 활동을 통해 얻은 군사경험을 토대로 『유격대동작』과 『유격대상식』이라는 소책자를 만들어 유격대 지휘관들과 대원들에게 보급하여 활용하도록 했다고 적고 있다.⁵¹⁾

‘유격대 전술’의 결정과 그것에 도움을 준 독서의 경험은 그가 동시대 다른 공산주의 활동가들과 국제 공산주의 노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함께 고려할 때 그 의미가 온전히 드러난다. 김일성은 엠엘파, 화요파 등의 분파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입만 열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설파하는’ 지식인 출신 공산주의자들의 교조적인 모습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국제당 파견원에 의해 모스크바 유학 권유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⁵²⁾ 그것을 거절했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아마도 그것은 김일성

49) 『세기와 더불어』 2권, 244쪽.

50) 『세기와 더불어』 2권, 299쪽. “그때 우리에게 그라우제위쯔의 <전쟁론>과 같은 책이라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은 계시를 받았겠는가. 당시의 우리 수준이란 그저 부대편성에서의 3.3제는 나뉘레옹이 창시한 것이라는 정도의 상식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라우제위쯔에 대해서는 이름이나 알 정도였다. 나는 2차 세계대전때야 그라우제위쯔의 <전쟁론>을 처음으로 읽수하였다. 지휘체계를 단순화하여 싸움군을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나를 쉽게 공감시킬 수 있었다. 반일인민 유격대는 중대를 기본전투단위로 하여 조직되었다. 나는 대장 겸 정치위원으로 선거되었다”

51) 『세기와 더불어』 3권, 251쪽.

52) 『세기와 더불어』 2권, 173쪽.

이 지식인 사회주의자들에게 가진 콤플렉스이자 그 반대급부의 자부심과 관련되어 있을 듯하다.

6. 결론을 대신하여

김일성은 당시 중국 및 만주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코민테른의 노선 아래에서 조선인 사회주의자가 겪었던 이중의 곤경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공산주의 운동과 민족해방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 식의 원리와 자막대기로 재고 내려먹이던 <국제노선>이 득세하고 이른바 계급적 리익과 국제적련대성의 이름밑에 민족적 전통과 지향을 한마디로 민족주의적편향으로 통렬히 공격하던 그 시기 남의 나라땅에서 혁명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독자적인 무력건설구상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⁵³⁾

김일성이 가지고 있던 코민테른 및 국제노선에 대한 깊은 반감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이 드러내는 코민테른 국제노선에 대한 비판과 그 국제노선을 추종하는 교조주의자들과의 투쟁, 그리고 자기 전통에 기반한 혁명 노선의 제시와 유격전의 창안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또 다른 원천으로 책읽기를 제시하는 『세기와 더불어』의 서사는 어떤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왜 김일성의 책읽기의 서사에서 마오 짜둥이 떠오르는 것일까?

마오 짜둥은 모스크바에 유학한 중국공산당의 지식인 엘리트 당원들에 비해서 마르크스-레닌과 소련의 여러 이론에 정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마오 짜둥은 평생 동안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혁명 노선을 창안하고 그

53) 『세기와 더불어』 3권, 329쪽.

정당성을 확보해 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오쩌둥은 왕명 등의 교조주의 자들과 싸우면서 중국 혁명의 노선을 도시 봉기의 좌경주의에서 유격전 등을 병행하는 농촌 중심의 투쟁으로 전환시켰다. 특히 그는 중국 민간의 생동하는 비유나 중국 역사상의 철학자, 군사전략가와 정치가의 격언을 인용하길 좋아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그의 경험과 책읽기로부터 연원한 측면이 컸다.⁵⁴⁾ 마오쩌둥과 김일성의 이 유사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은 사후적인 모방인가 아니면 동아시아적 조건을 공유한 성공한 혁명가들이 걸 어간 지식과 실천의 유사성일까? 이것은 더욱 숙고해야 할 향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54)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진진, 김승일·채복숙 옮김, 『마오쩌둥의 독서일기』, 경지출판사, 2018을 참조할 것.

■ 참고문헌

- S. 리몬 케년, 『소설의 현대 시학』, 예림기획, 1999.
-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박종린, 『사회주의와 맑스주의 원전 번역』, 신서원, 2018.
- 박헌호 편, 『센티멘탈 이광수』, 소명출판, 2013.
- 서대숙·이완범 공편, 「김일성 문헌에 대한 고찰」, 『김일성연구자료집 1945-1948년 문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1.
- 성혜량, 『등나무집』, 지식나라, 2001.
- 손원태, 『내가 만난 김성주 - 김일성』, 동연, 2020.
- 와다 하루키, 서동만·남기정 옮김, 『북조선 -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돌베개, 2002.
- _____, 남기정 옮김, 『와다 하루키의 북한 현대사』, 창비, 2014.
- 원작 장광자, 각색 김혜선, 『(그림책)압록강가에서』, 금성청년출판사, 2006.
- 유순호, 『김일성 1912 - 1945 상권 - 성장과 시련』, 서울셀렉션, 2020.
- 진진 지음, 김승일·채복숙 옮김, 『마오쩌둥의 독서일기』, 경지출판사, 2018.
- 쩌우전환, 한성구 옮김, 『번역과 중국의 근대』, 궁리, 2021.
- 홍정선·최창록 엮음, 최창록 옮김, 『중국문학 속의 한국』, 소명출판, 2017.
- 水野直樹·和田春樹, 『朝鮮近現代史における金日成』, 神戸學生青年センタ - 出版部, 1996.

Books read by Kim Il-sung

- Focusing on the reading experience shown in the memoir

『*With the Century*』 -

Jeong, Jong-hyun*

The history of Kim Il-sung's anti-Japanese armed struggle corresponds to the genesis of North Korean society. This paper extracts the list of books that Kim Il-sung recalls reading from his memoir, 『*With the Century*』. In addition, the meaning of important books that Kim Il-sung emphasized as having a special influence on his life will be reviewed while intersecting with the historical facts of his time. The books Kim Il-sung read covered a wide range of fields, including literary works by Lee Kwang-soo and Lu Xun, East Asian classic novels such as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various military books, Marxist-Leninist writings, and newspapers and magazines published in colonial Joseon and China. The reading list read by Kim Il-sung, the alpha and omega of North Korean society, has a special meaning in that it directly serves as a standard for composing North Korean classics.

Key words: Kim Il-sung, *along with the century*, Lee Kwang-soo, Sangwol(尙鉞), Chiang Kuangtz'u(蔣光慈), Lu Xun(魯迅),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Mao Zedong(毛澤東)

논문투고일: 2023년 7월 23일 || 심사완료일: 2023년 11월 15일 ||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15일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ha University.